

효원 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sletter

도서관소식지

나노생명과학도서관 이렇게 달라졌어요!

활용도가 높은 자료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재배치하였으며, 여가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이 3층에 조성되었습니다.

01 미디어 코너

- 미디어 부스(Media Booth) : 6개의 개인(1~3인 사용)공간으로 구분되어 영화나 방송시청 가능
- PC 검색대 : 8대의 검색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어 정보탐색, 인터넷 강좌 청취 활용 가능

독서치료자료 코너

02

-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500여권의 자기 치유서와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비치
- 자료 열람과 편안한 휴식을 위한 50여석의 열람석 구비

03

학습과 교양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료 코너

- 각종 자격증 취득과 취업준비를 위한 관련 자료 비치
- 최신 연속간행물과 국내에서 발행하는 4종의 신문(동아, 서울, 부산, 스포츠) 비치
- 각종사전, 연감류, 화보 등 참고자료 비치

문의 | 나노생명과학도서관(밀양캠퍼스) 055-350-52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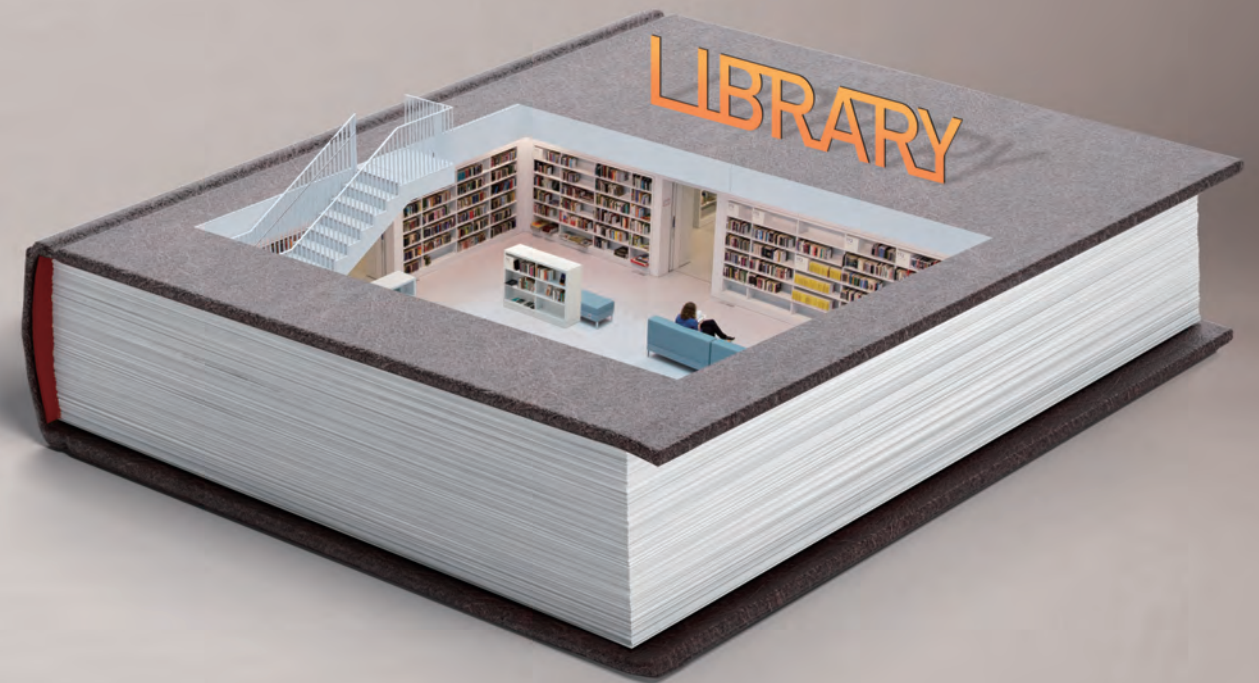


* 이 지면은 향후 도서관 발전기금을 출연한 개인이나 기관을 위한 광고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고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기획전산팀 담당자(051-510-1810)에게 문의 바랍니다.



부산대학교도서관
<http://pulip.pusan.ac.kr>

지식의 충전소,
영혼의 치유소,
부산대학교도서관



부산대학교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똑똑, 문을 열다

도서관 무박2일 독서캠프가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제1도서관 인문사회과학자료관(북카페)에서 열렸습니다.



도서관 밤샘 독서캠프 '책이 빛나는 밤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책'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던 그 날

난생 처음 도서관에서 힘껏 질러보던 함성, 유쾌한 웃음,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 도서관에서는, 즐거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 04 칼럼 50대의 비전세우기
- 06 특집 올바른 도서관 이용문화 캠페인 '공공의 적들?'
- 08 도서관, 길을 찾다 도서관을 열거는 사람들
필요한 외국학술지, 무료로 이용하세요!
- 10 도서관, 서가를 들여다보다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일상의 쉼터, 북카페
- 12 도서관, 책을 이야기하다 너와 나의 고전읽기
PNU와 함께 읽고 싶은 책 50선
- 14 시선집중
- 15 도서관 후원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이재환 발행일 2013. 9. 18.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 | 051-510-1800 | <http://pulip.pusan.ac.kr>
 편집 부산대학교도서관 기획전산팀 | 051-510-1810 | library@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 051-248-1513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소식과 내용을 더욱더 알차게 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효원in도서관>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효원in도서관>이 되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도서관 블로그(<http://pnuilib.tistory.com>)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50대의 비전세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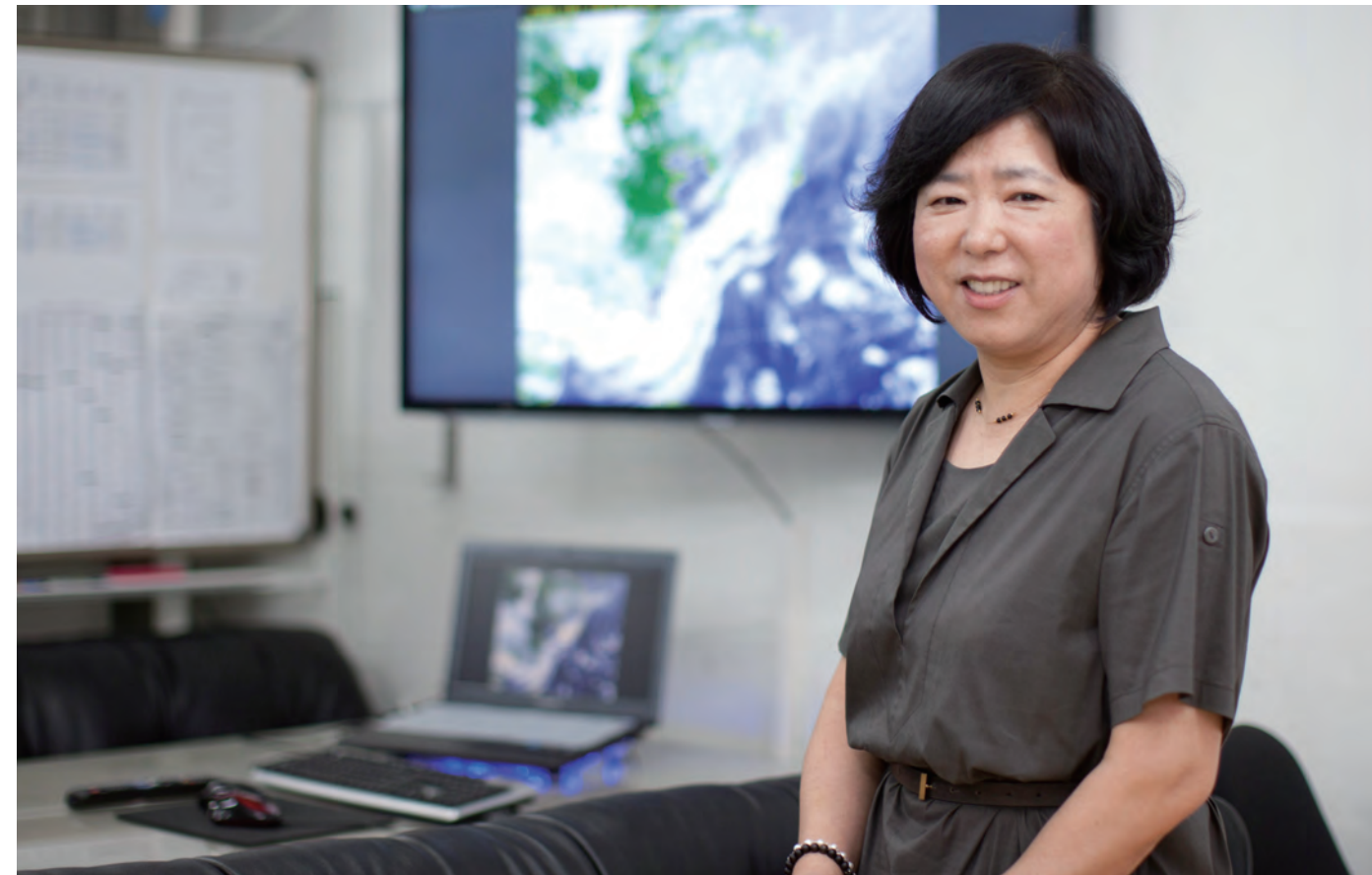
‘한 발은 현재, 다른 한발은 미래를 향해 내딛고 있어야 한다.’
는 것이 나의 인생판이다.
인생을 설계할 때에, 행운이 가져다 준
현재의 우연한 성취에 안주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현재의 장애물로 인해서
좌절하여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대기와 빙권의 기후변화 포럼’에 참석하여 평소 존경하는 석학 한 분과 점심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다. 그 분은 영국 임페리얼 대학에서 기후변화연구소를 운영하는 sir Brian Hoskins 교수님이다. 교수님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과학 발전이 학문에서 가장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기후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바탕이 되는 물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미해결 과제들이 남아 있어서 후배와 제자들이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후학을 양성하는 과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 기후 물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학문적 성과와 중요성에 대한 현란한 수사에 급급하지 말고, 정치·사회적 이슈나 화두로부터 초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해결 방안에 대한 꾸준한 천착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셨다.

‘한 발은 현재, 다른 한발은 미래를 향해 내딛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인생판이다. 인생을 설계할 때에, 행운이 가져다 준 현재의 우연한 성취에 안주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현재의 장애물로 인해서 좌절하여서는 안 된다. ‘미래’가 주는 무궁한 가능성과 원동력은 마치 캐지 않은 탄광과도 같다. 그 미래를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설계하는 삶의 자세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는 믿음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고자 한다. 미국 하와이 대학의 세계적인 연구 그룹인 왕빈 교수 그룹과 공동으로 기후 연구를 수행하면서 일본, 중국, 인도, 미국 등의 해외기관과의 연구교류에 있어서도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세계적 연구기관과 연구원 및 학생들의 교류 활동과 국제공동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외 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하면서 다음 3가지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첫째, 서로 윈-윈하는 관계 둘째, 시너지 효과를 내는 활동 셋째, 장기적 교류가 바로 그것이다. 관계를 통하여 나의 연구 분야인 기후변화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와 ‘통합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들 사이에서 선의의 경쟁과 함께 인적교류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모든 학문 분야가 그렇듯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각 세부 분야의 우수한 연구진들과의 상호연구협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글로벌 연구실(GRL)사업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과 국제협력 과학자들의 네트워크가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나의 비전 이야기를 해 볼까한다. 인생관은 비전과 맞물려 있다. 인생관이 한 평생을 관통하는 가치라면, 비전은 인생의 각 단계별로 세울 수 있는 가치의 마디, 또는 생애주기별 목표단위라고 할 수 있다. 50대에 접어들



어 그 동안 내가 성취한 바에 대한 모종의 성취감이나 보람을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sir Brian Hoskins 교수님의 대답으로 잠시나마 공감하고 싶은 마음에 어느 정도 답을 기대하고 교수님께 많은 업적을 이루신 것에 대한 소감을 여쭙어 보았다. 그 분은 웃으며 간단히 대답하였다. 항상 목적인 바를 달성하고 나면, 이후에 “what is next?”라고 자문한다고 한다. 성취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그 다음의 새로운 도전을 구상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그 분은 언제나 도전하는 정신으로 과학에 임하고 있다. 40대였을 때 나 또한 50대에 이루고 싶은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비전을 세웠다. 그 때의 비전은 “do what I want”였다. 이 비전은 내 분야의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연구 주제를 경쟁력 있고, 전문화된 연구업적으로 정착시켜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특화된 연구에 집중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비전을 세우고 열심히 연구한 결과일까, 아니면 국내의 선진화된 연구 지원 시스템 덕분일까 50대가 되어 나는 글로벌연구실사업을 하게 됨으로서, 문순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상당한 규모의 연구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글로벌연구실사업을 계획하면서 나는 50대 비전을 다시 세우게 되었다. 그것은 “thinking community”로, 다산의 학문 방법인 비민보세(裨民補世) 정신과 일치한다. 다산은 학문의 방법을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근본에 대해 고민하였는데, 이 근본이란 학문을 직업으로 하는 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로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학문하는 목적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학문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비민보세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세상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돼야 함을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이는 비단 학문하는 사람 개인의 삶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학문이 지니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관한 다산의 의식 있는 반성으로, 현대사회에서 과학을 하고 있는 나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보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건실한 목적이 있는 자만이 비민보세의 정신으로 학문을 할 수 있으며, 이 정신을 바탕으로 이룩된 학문만이 시민사회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비전과 철학에 대한 한 가지 실천으로 최근에 ‘국민과학포럼’의 공동대표로 맡고 있다. 이 포럼의 슬로건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이 일은 아직 태동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포럼의 회원인 산·학·연 등 각계에서 활동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60대가 되면 나는 또 다른 비전을 세울 것이다. 아직은 뚜렷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세우지는 못하지만 70대의 설계를 위한 것일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질문하여 본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도서관 이용문화 캠페인 공공의 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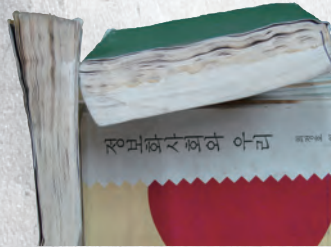
도서관에서는 8월 6일(화)부터 상시로 '올바른 도서관 이용문화 캠페인' 슬라이드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공공의 적들?'이란 제목으로 제1도서관 1층 로비 미디어갤러리와 각 주제자료관 메모보드(키오스크)를 활용해 슬라이드를 상영하고 있다.(상영시간 6분 정도)
이번 전시는 효율 공공의 자산인 도서관 자료와 시설에 대한 불량이용사례를 슬라이드로 제작, 이용자가 상시 관람하도록 해 잘못된 이용사례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올바른 도서관 이용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상영 중인 슬라이드는 도서관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 또는 도서관 블로그(<http://pnulib.tistory.com>)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도서관 불량이용자들을 신고합니다

PART 1

물에 젖은 지식

지식이 물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커피와 물을 마신 책은
퐁퐁해져요



책에다 세계전도를 그리셨군요.
여기 말고 나무에 물을 주세요



저는 체리메이드 마시는
하네가 아니랍니다

PART 2

찢어가 버린 정보

도서관의 장기를
몰래 적출해간
당신,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아, 스코랩이라도 하셨나요?
일체복인중...



난 당신이 그 다음에 할
행동을 알고 있다.
가져가실 거죠?



책을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PART 3

낙서로 얼룩진 지식의 보고들

지식에 + 낙서가 더해지면
=? 쓰레기가 돼요



선주들께서도 놀리실 학구연?



잠시 본인 책으로 착각하신 듯.
내 책인지 도서관 책인지
확인하셔야죠!



어머~ 신기한 해석...
안 그러셔도 돼요~

PART 4

책의 최후

우리
너~무 오랫동안
사랑한 걸까요?



한없이 쓰레기에 가까운 책들...



많이 이용해서 낡고...



던져서 또 죽고...



물먹고 찢겨서 죽고...

PART 5

그가 떠난 자리

도서관 이용 후
당신의 흔적들을
보여드립니다

마시다가 만 커피를
두고 가셨습니다.
이거 내일
또 마실 건가요?



그녀와의 맛있는 간식,
뒤처리까지
신사의 모습의
보여주세요

학습 후에
남겨진 것들...
당신의 인격인가요?



캠커피와 초코바...
먹을 때는 행복,
두고 가는 건 불행

당신은 공공의 적입니까? 아름다운 이용자입니까?

혼자만의 욕심! 회원인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찢어진 책은 장기 없는 죽은 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북에 쏟아진 커피는 보험이 지켜주지만 오염된 도서는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도서관 자료는 공유할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책을 소중히 하는 당신이 진정한 회원입니다.



과학기술자료관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 세상을 움직이게 합니다

지원센터(FRIC, <http://fric.pusan.ac.kr>)를 통해 전국 민을 대상으로 기술과학분야의 해외 학술정보(우수 외국학술지, 주요보고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무료 원문 복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 4, 사범대학 1)에 대한 학술자료 이용안내, 최신 동향, 수업교재정보, 소장자료 및 전자자료 연동서비스 등 학과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유용한 도서관 이용을 위한 이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교육은 정기교육과 맞춤형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교육을 통해 도서관의 시설, 장비,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용방법은 물론, 타 기관 자료이용, 전자자료 이용, 정보검색방법, 참고문헌 관리방법 등 논문 작성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진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및 자료 검색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맞춤형 교육은 학과 및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실시되며 교육신청자의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용자들을 위한 일상의 공간, 그 속에서 맛보는 특별한 서비스를 위해 오늘도 힘차게 도서관을 열어가는 사람들, 그 다섯 번째 만남 과학기술팀과 함께 한다.

02 연구·학습지원을 위한 전문화된 서비스

과학기술팀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과학기술 분야의 자료를 추천 및 구입하고, 신규 구입·기증·반납자료를 신속하게 서가에 배열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를 수선하거나 재구입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대한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학습 및 연구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특히 전문적인 학술정보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자료조사 및 타기관 연계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3 도서관, 어디까지 이용해 보셨나요?

도서관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료를 구입하고, 시설을 확충하며, 이용자 편의 향상 및 연구 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 시설,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이 미처 알지 못하여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용자 본인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학술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용교육의 참여는 물론 수시로 이루어지는 맞춤형 교육도 적극 신청 부탁드립니다.

04 이용자를 위한 끝없는 노력

현재 19개의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를 향후 전 학과로 확대 서비스함으로써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도서관에서만 이루어지는 형태의 이용교육에서 벗어나 학과 및 연구실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이용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료 구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연구와 학습, 휴식을 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http://libguides.pusan.ac.kr>)를 통해 과학기술과 관련된 19개 학과(자연과학대학 6, 공과대학 8, 나노과학기술

01 과학기술팀은?

자연과학, 응용과학, 공학 분야의 주제와 관련된 단행본, 연속간행물, 참고자료 등을 관리·제공하고 있으며, 학내 연구자들의 연구와 학습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조사·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해외 학술정보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학술지



필요한 외국학술지, 무료로 이용하세요!

- 부산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Foreign Research Information Center)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해외 학술정보의 공동 활용과 예산절감을 위해 총 9개 주제 분야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학술정보 지원센터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교를 비롯해 전국 9개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약 17,000 여종의 외국학술지를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9개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안내

부속대학	지원센터(주제분야)	제공 학술지	
부산대학교	기술과학	건축·토목학·기계·재료·조선·항공우주공학	1,004종
강원대학교	생명공학	약학, 생물학 등	1,424종
경북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정보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학, 컴퓨터공학 등	6,486종
고려대학교	인문학	문학, 어학, 역사학, 철학 등	1,772종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천문학 등	2,314종
연세대학교	임상의학	의학, 치의학, 간호학 등	442종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사회학	교육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등	1,621종
전북대학교	농축산학	농축산학, 수산학, 해양학 등	534종
충남대학교	행정·경영학	정치·외교학, 법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등	1,305종
		합계	16,902종

외국학술지 검색·논문복사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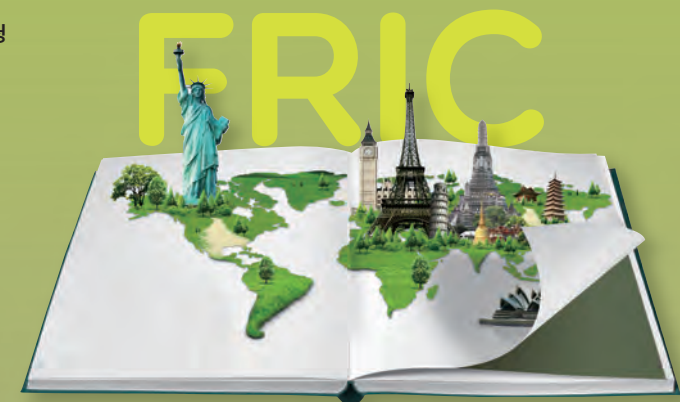
- 1 RISS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2 학술지 검색 후 선택
 - 3 원하는 학술지 권호를 확인 후 '복사/대출신청' 선택
 - 4 복사신청서 작성 시 결제방법, 원하는 학술지의 논문명, 권호, 페이지를 정확하게 기입
 - 5 발송방법 및 제공도서관 선택
- ※ 제공도서관을 [무료] ○ 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로 선택 후 신청

외국학술지 논문 수령방법

- 1 복사신청서 작성 시 [결제방법]에서 [선불]을 선택한 경우 신청한 주소지에서 전액 무료로 자료 수령(결제과정 없음)
- 2 복사신청서 작성 시 [결제방법]에서 [후불]을 선택한 경우 소속 도서관의 연락을 받고 도서관 방문 후 비용납부 없이 자료 수령

부산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 1 위치 | 제1도서관 4층
- 2 연락처 | 051-510-3102, fric@pusan.ac.kr





도서관, 서가를 드러다보다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일상의 쉼터, 북카페(Book Cafe)

대학도서관이 변하고 있다. 단순한 학습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제1도서관 신관 3층 인문사회과학자료관 내에 마련된 북카페(Book Cafe)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자의 쉼터이자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화된 공간을 기반으로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독서모임' '저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함께 열리는 도서관 북카페. 그 속에서 한 박자 쉬어가 보는 건 어떨까.

책의 숲을 거닐다



북카페에 들어서면 공간을 가로지르며 길게 늘어선 역동적인 모양의 서가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유기적 자연생태를 상징하는 지렁이를 형상화해 만든 북카페는 '책의 숲을 가꾼다'는 의미로 지렁이가 땅을 비옥하게 하고 기름지게 만드는 것처럼, 책을 통해 사람들이 사고력을 키우고, 삶을 풍성하게 잘 가꾸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북카페 서가에는 독서치료 관련 자료를 비롯해 부산대학교가 선정한 고전(古典) 99선 등이 비치돼 있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대출도 가능하다.

공간에 이야기를 담다



History + Storytelling 히스토리텔링
북카페에는 'Power of 100'이라는 주제로 세계 역사, 한국 역사, 부산대학교 역사로 나누어 사회과학 근현대사 100년을 연도별 주요 흐름과 함께 전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민주화 발전의 한 획을 그은 부마항쟁을 소개하며 전시큐브 속 사진을 통해 그 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부마항쟁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

마음의 상처, 책에서 치유의 길을 발견하다!



부산대학교도서관은 자기 자신의 문제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하여 2006년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지역주민, 직원까지 참가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 독서치료(bibliotherapy)는

'책읽기를 통한 마음치유'라고 할 수 있다. 상황에 맞는 책읽기를 통하여 상처의 근원을 인식하고,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통찰하도록 하여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돕고 있다.

•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독서치료 과정에는 '사람들의 상한 감정'과 '아픈 마음'을 돌보아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는 상황별 독서치료목록인 '마음의 상처, 책에서 치유의 길을 발견하다!'를 2006년, 2007년에 이어 2011년 세 번째로 발간하였다.

• 2013년 2학기 독서치료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중 일부		
<p>성장의 아픔</p> <p>마음속의 그림책 이희경 미래&b 2009</p>	<p>우울</p> <p>왜 나만 우울한 걸까? 김혜남 중앙&b 2003</p>	<p>자기존중</p> <p>(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기존중 이무석 비전과리더십 2009</p>
<p>성인아이</p> <p>30년만의 휴식 이무석 비전과리더십 2006</p>	<p>자아찾기</p> <p>동화 밖으로 나온 공주 마사 그레드 김연수 역 뜨인돌 2002</p>	<p>치유와 성장</p> <p>프로이트의 의자 정도연 웅진지식하우스 2009</p>

이번 학기에도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계속된다.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2개 과정으로 나누어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각 5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부산대학교 직원 대상 프로그램은 11월 29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제1도서관 1층 구관 세미나실에서 그룹별 20명씩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 (<http://pulip.pusan.ac.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 대학생을 위한 주제별 독서 목록

2012년부터는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 고민 등에 도움이 되는 책을 수록한 '대학생을 위한 주제별 독서 목록'을 발간하고 있다. 2012년 첫 번째 목록 <나는 누구인가?>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 열두 번째 목록 <여성>까지 다양한 상황별 책을 소개하고 있다.

주제별 독서 목록		
1 나는 누구인가?	2 사랑	3 흔들리는 20대
4 가족, 상처인 동시에 구원!	5 부모와의 관계	6 감정돌보기
7 자기존중	8 불안	9 우울
10 화, 분노	11 남성	12 여성

상황별 독서치료목록에 실린 자료는 제1도서관 3층 북카페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산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 > 이용자서비스 > 독자상담서비스 > 독서치료 또는 '책 읽는 대학' 홈페이지(<http://reading.pusan.ac.kr>)를 통해서 목록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도서관은 앞으로도 자기 성장을 돕고, 독서영역을 다양화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지식과 휴식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이 더욱 친숙한 일상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책도 보고, 문화예술도 향유하며,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도 활용하여 도서관이 심신의 휴(休)공간으로 재탄생 되길 기대한다.

효원인은 고전을 즐겨 읽는다

너와 나의 고전읽기

도서관은 5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너와 나의 고전읽기'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부산대학교 선정 고전 99선' 읽기에 효원인들이 함께하며,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마음을 넓히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59편의 독후감이 접수되었으며 1, 2차 심사를 거쳐 우수상 5명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8월 28일 대학본부 제1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수상작 원문은 '책 읽는 대학' 홈페이지(<http://reading.pusan.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은 대학생들의 독서를 권장하고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독후감 공모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변신

프란츠 카프카 | 이주동 역 | 숲 | 1997
『변신』은 인간이 벌레로 변하는 설정을 통해 인간 본질에 대해 되묻는다. 이미 물질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생산력이 없기에' 벌레만도 못하다. 카프카는 이렇게 되묻는다. 벌레로 변한 인간과 생산력이 결여된 인간 중 어느 것이 더 억울한가.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네임카드와 타이틀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현대사회에서 카프카의 외침은 더 호소력 있게 들린다.
정혜란(노어노문학과)

열하일기

박지원 | 돌베개 | 2009
열하일기 속 연암이 중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청의 문물들. 이들과 경험한 다채로운 소통 속에는 그의 심오한 사상과 철학이 담겨있으며 또한 풍자와 해학이란 조명이 더해 더욱 빛을 발한다. 이렇듯 열하일기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연암의 유머를 따라 여유와 활기를 느끼며 연암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 또한 하나의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방대한 텍스트의 열하일기 속 연암의 방대한 소통에 담긴 그의 사상과 철학을 음미하며 압록강에서 열하에 이르기까지 함께 완주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박영태(한문학과)

이방인

알베르 카뮈 | 김화영 역 | 민음사 | 2011
이 책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확정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읽어야만 할 것 같다. 주인공 모르소는 책의 처음부터 끝에서 앞 장까지 그런 사람이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신을 한 번은 경험해보아야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삶의 외길을 좋은 대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김수희(의류학과)

파우스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 이인용 역 | 문학동네 | 2009
『파우스트』는 인간이 겪고 느낄 수 있는 경제, 정치, 사회, 대중, 언론에서부터 심리, 종교, 사랑, 철학 뿐 아니라 자연, 역사, 신화 등을 총망라 하며 욕망의 동물인 인간의 삶에 대한 고찰이 담겨있는 고전이다. 이 작품은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허무한 존재임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상고하게 한다. 자신의 인생에서 무언가 결여되어 있다고 느끼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한다면 일독을 통하여 귀중한 깨달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허윤석(경영학과)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 | 공경희 역 | 민음사 | 2009
홀든 콜필드라는 소년의 퇴학 후 3일간의 행적을 통해 위태로운 사춘기의 정신세계를 생생하게 묘사한 호밀밭의 파수꾼. J.D. 샐린저는 무거운 고전들 반열에 불랑스러운 성장 소설 한 편을 올려두었다.
문지경(치의예학과)

PNU와 함께 읽고 싶은 책 50선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는 201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든 효원인을 대상으로 'PNU와 함께 읽고 싶은 책'을 공모하여, 우수 추천서 50건을 선정하였다. 효원인 추천도서 및 우수추천서 원본은 '책 읽는 대학' 홈페이지 (<http://reading.pusan.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류	생각해 봤어?	홍세화 교육공동체벗 2012
철학	누구에게나 우울한 날은 있다	브래들리 트레버 그리브 바다출판사 2001
	맨얼굴의 철학 당당한 인문학	강신주 시대의창 2013
	불평 없이 살아보기	웰 보웬 세종서적 2009
	의지력의 재발견	로이 F. 바우마이스터, 존터너니 에코리브르 2012
	한국인의 마음	지상현 사회평론 2011
사회과학	게으름에 대한 찬양	버트런드 러셀 사회평론 2009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돌베개 2011
	바보 만들기	존 테일러 개토 민들레 2005
	아마존은 왜 최고가에 자포스를 인수했나	이시즈카 시노부 북로그컴퍼니 2010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	리오 휴버먼 책벌레 2001
자연과학	조선의 뒷골목 풍경	강명관 푸른역사 2003
	헌법의 풍경	김두식 교양인 2011
	인간 등정의 발자취	제이콥 브로노우스키 바다출판사 2004
	인간과 동물	최재천 공리 2007
	응용과학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예술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올리버 색스 이마고 2006
	색에 미친 청춘	김유나 미다스북스 2011
	1984	조지오웰 문학동네 2009
	가스미초 이야기	아사다 지로 바움 2009
	검은 꽃	김영하 문학동네 2010
문학	광장	최인훈 문학과지성사 1999
	나를 보내지 마	가즈오 이시구로 민음사 2009
	나만 위로할 것	김동영 달 2010
	데미안	헤르만 헤세 민음사 2000
	세일즈맨의 죽음	아서 밀러 민음사 2009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창비 2008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위지안 예담 2011
	울든 투	스카너 현대문화 2006
	윤선도 평전	고미숙 한겨레 2013
	의사의 꿈	양정현 건강신문사 2010
	이반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민음사 2008
	인연	피천득 샘터 1996
	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 민음사 2006
	책도둑	마커스 주삭 문학동네 2008
	체르노빌의 아이들	히토세 다카시 프로메테우스 2006
	침이 고인다	김애란 문학과지성사 2007
	컬러풀	모리 에토 문학수첩리뷰북스 2004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김연수 자음과모음 2012
	한강	조정래 해냄 2007
	햄릿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음사 1998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 민음사 2001	
역사	대한민국의 기원	이정식 일조각 2006
	만들어진 한국사	이문영 파란미디어 2010
	백제의 왕궁을 찾는 20여 년의 여정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봉사여행	손보미 쌤앤파커스 2011
	십자군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문학동네 2011
위대한 패배자	볼프 슈나이더 을유문화사 2005	
책벌레들 조선어를 만들다	강명관 푸른역사 2007	
처음 만나는 이슬람	하룬 시디퀴 행성:B온다 2011	

※ 듀이십진분류법(DDC)에 따라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제2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



지난 7월부터 제2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제2도서관 리모델링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전체 건물에 대한 안전도 보강, 열 효율 개선 및 열람환경개선 공사이다.

9월 현재, 철거 및 구조물 보강공사, 조적 및 철골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료 보호를 위해 공사기간 동안 모든 서가를 대형 비닐포장으로 밀봉해 놓은 상태이다.

제2도서관 리모델링으로 보존서고 자료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도서관은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9월 1일부터 제2도서관 단행본 자료에 한해 타기관 자료 대출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1도서관을 비롯해 각 단과대학에 대체열람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개관시간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올해 12월 말 공사가 완료되면 제2도서관 1층 제1열람실(구)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iCOMMONS를 비롯하여 영화상영 등이 가능한 오디오룸, 취업지원자료센터 등이 위치할 예정이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열람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노트북열람실과 대학원열람실, 그룹스터디룸 규모를 기존에 비해 2배 확대하여 새로운 학습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문의 | 제1도서관 기획전산팀 051-510-1820

제18대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장교 선임



부산대학교가 제18대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장교로 선임됐다. 임기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협의회에서는 기본장서확충, 목록 품질개선, 보존서고건립, 전자자료 공동구매 등 기관 간 업무 공유 및 협력 증진을 통한 예산절감, 업무생산성 증대를 주요 목표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는 전국 53개 대학도서관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부산대에서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10월 1일에는 부산대에서 디스커버리 솔루션에 관한 워크숍이, 10월 17일과 18일에는 공주대에서 도서관정보화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제1도서관 기획전산팀 051-510-1820

Special Focus

부산대도서관, 일본 츠크바대학부속도서관 방문



8월 22일 이재환 도서관장을 비롯한 부산대도서관 관계자 4명이 일본 츠크바대학부속도서관을 방문하여 양 대학 도서관간 상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나카야마 신이치 츠크바대학부속도서관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SCI 분석서비스, 학과별 주제가이드(Libguides), 디스커버리 서비스(Discovery Service), 츠크바 리포지토리, SCPJ(Society Copyright Policies in Japan) 등 양 대학도서관의 특화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향후 양 대학 도서관은 지속적인 업무교류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1973년에 설립된 츠크바대학부속도서관은 중앙도서관 외 4개 전문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60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문의 | 제1도서관 기획전산팀 051-510-1810

'저자와의 만남' 김병완 작가 초청 강연



도서관과 함께하는 '저자와의 만남' 행사가 학내 구성원,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9월 5일 제1도서관 3층 북카페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아톰포, 2013)의 저자 김병완 작가가 초청됐다. 11년차 평범한 직장인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까지 도서관에서 보낸 그 1000일간의 이야기를 통해 김병완 작가는 글쓰기 노하우로 '의식 독서법'과 '초서 독서법'을 강조했다.

이번 강연은 독자들이 현대 사회에서 도서관과 책이 가지는 진정한 힘과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도서관에서는 매년 저자와 독자가 함께 공감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오고 있으며, 오는 9월 30일 오후 7시에는 10·16기념관에서 『살인자의 기억법』(문학동네, 2013) 출간 기념, 김영하 작가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펼칠 예정이다.

문의 | 제1도서관 기획전산팀 051-510-1309

도서관 통계연보 제4호(2013) 발간



부산대학교도서관 통계연보 제4호(2013)가 발간됐다. 도서관 통계연보는 도서관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2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 호는 2013년 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도서관 이용, 예산, 자료,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가 수록돼 있다. 통계연보는 도서관 홈페이지

(<http://pulip.pusan.ac.kr> ▶ 도서관안내 ▶ 도서관소개 ▶ 현황)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문의 | 제1도서관 기획전산팀 051-510-1309

아름다운 기부, 도서관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과거 past	현재 present	미래 future
 <p>그날의 도서관 1980년 9월 9일, 대학의 심장 역할을 하게 될 중앙도서관(현 제2도서관)이 부산캠퍼스에 들어섰습니다.</p>	 <p>오늘의 도서관 2013년 지금, 준공한지 33년이 지난 제2도서관은 노후화된 시설과 열악한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시작하였습니다.</p>	 <p>내일의 도서관 누구나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서관. 사람과 책이 만나며 지식과 정보를 구하고 삶에 지친 영혼이 쉴 수 있는 도서관. 2014년 1월, 제2도서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p>

그 '멋진 만남'과 함께 당신의 뜻 깊은 후원을 기다립니다

과거 언젠가 당신이 꿈을 키우던 그 곳에서 지금 또 다른 누군가가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뛰는 심장처럼, 꿈을 향해 멈추지 않는 그들의 열정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새롭게 재탄생되는 제2도서관의 열람실 의자 하나, 책상 하나에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PNU 도서관친구들' 프로젝트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제1도서관 기획전산팀 051-510-1810